

## 케네디 정부의 2인자를 만나다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회담

### “미국에 왜 왔소?”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거만한 자세로 첫마디

### “미국에 구걸하러 온 것 아니다. 원조 안 받기 위해 혁명한 것”

JP 열변

1962년 10월 23일 나는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의 공식 초청으로 간 것이다. 육군 대위로 미국 포트베닝 육군보병학교(조지아주)에서 유학한 지 10년 만에 중앙정보부장 신분으로 미국 땅을 다시 밟았다. 혁명정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얻는 게 나의 방미 목적이었다.



1962년 백악관에서 모인 케네디 대통령 3형제 - 왼쪽부터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존 F 케네디 대통령.

애초엔 존 F 케네디(JFK)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도착하는 날 쿠바사태로 미국과 소련 간 전쟁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대신 국무장관(던 러스크), 상무장관(루더 호지스), 육군참모총장(얼 휠러), 국방부 정책기획위원장(윌트 로스토), 국방부 차관보(윌리엄 번디) 등 주요 인사를 만나게 했다. 그중 실세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RFK) 법무장관이었다.

로버트 케네디와 악수를 나눈 뒤 나와 정일권 대사는 소파에 앉았다. 로버트는 소파가 아닌 자신의 책상 의자에 앉더니 책상 아래쪽 서랍을 하나 빼서 그 위에 두 발을 올려놨다. 비스듬히 의자에 기대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물었다. “미국에 왜 왔소?”

무시하는 듯한 그의 말투에 기분이 나빴다. ‘잉여농산물이 나 잔뜩 달라고 떼쓰려고 온 것 아니냐’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당시 극빈(極貧)에 시달리던 우리나라는 PL 480호(미국의 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에 따라 미국에서 남는 농산물

을 무상으로 들여와 식량을 보충해야 하는 여건이었다. 나는 속으로 ‘이 자식 봐라. 너희 형인 대통령이 너하고 얘기하라고 해서 여기 온 건데, 왜 왔느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했다. 애써 참고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왜 왔는지 얘기하겠다. 내가 미국에 돈 내라 식량 내라, 그런 구걸을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쥐도 그만, 안 쥐도 그만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먹고살 것을 만들 거다. 내가 온 건 왜 혁명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당신 형을 만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다. 미국엔 전부 구걸하려는 사람들만 오는 줄 아느냐?” 나는 목청을 높였다. 로버트는 시치미를 떼고 “그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시 물었다. 나는 “안 되면 되는 날까지 요구를 하고 이해시키고, 그것 밖에 없지 않겠느냐. 혁명을 이해시키러 왔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때까지 내가 얘기하겠다”고 되받았다.

로버트는 한참 동안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여전히 두 발을 책상 서랍 위에 얹어놓은 채였다. 성질이 오른 나는

보란 듯이 소파에 일자로 벌러덩 드러누워 버렸다. 당황한 정일권 대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인데 그렇니까. 일어나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정 대사에게 소리 지르듯 말했다. “저걸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약소국에서 왔지만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 녀석이 자세를 바꾸면 나도 일어납니다.” 우리말로 주고받은 대화였지만 로버트가 눈치를 챘다. 그제야 그가 다리를 내려놓고 서랍을 집어넣더니 정자세로 고쳐 앉았다. 그걸 보고 나도 똑바로 앉았다. 그러곤 우리 셋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로버트는 나를 시험해본 거였다. 내 반응이 상상 이상 이어서 그도 적잖이 놀란 것 같았다.

그때부터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다. 로버트가 “무엇 때문에 혁명이다, 쿠데타다 평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물었다. 나는 거사를 할 때부터 생각했던 대로 대답했다. “언젠가는 미국과 같이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적으로 영위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혁명을 했다. 미국에 원조해 달라고 손 벌리지 않는 나라, 너희 나라에 짐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 대답에 나를 보는 로버트의 눈이 달라지는 듯했다. 그가

“요구할 게 뭐냐”고 물었다. 나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하나는 한국에 있는 1600명가량의 미국 경제협조처(USOM) 직원을 반으로 줄이고 그 남은 재원으로 실질적인 원조금액을 늘려 달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한 해 2억 달러를 원조해 줬지만 USOM 직원 봉급 등을 빼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한참 못 미쳤다. 또 다른 요구는 잉여농산물 주는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양곡이 필요한 건 보릿고개로 불리는 4~6월 춘궁기(春窮期)인데 미국은 농산물을 자기들 편의에 따라 10~11월에 보냈다. 나는 “급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원조가 될 수 있도록 원조 방식과 시점을 전부 고쳐 달라”고 요구했다. 로버트도 “그렇게 하겠다. 원조라는 게 필요할 때 맞춰 손에 들어야 하는데 관례를 따르다 보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동의했다.

그리고 평소 지론이기도 한 미국의 역사적 패착인 이 말도 던졌다. “당신네 나라가 우리 한반도를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분단의 아픔을 안게 한 원인을 만들었소”라고 따졌다. 그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라고 묻기에 이렇게 답해 줬다. “38선을 누가 만들었소. 딘 러스크 육군 대령이 굶지 않았소. 왜 아무 죄 없는 한국을 반으로 갈라 놓았느냐 말이요. 우리를 분단시켜 싸우게 만든 것이 바로 미국이요.”



1964년 방한한 로버트 케네디 미국 법무장관(오른쪽)이 박정희 대통령(왼쪽)과 면담하고 있다.

로버트의 형 존 F 케네디(JFK) 정부에서 국무장관에 오른 러스크는 대령 시절이던 45년 8월 한반도 지도에 38선을 그어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케 하는 초안을 만들었다. 장래를 전혀 내다보지 못한 전략적 패착이었다. 나는 해방 전 미국이 우리에게 끼친 쓰라린 인과因果를 지적한 것이었다.

〈중앙일보 증언록 '소이부담' (105) 박정희의 용미用美외교' 중에서 정리 인용〉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 로버트는 서가로 가더니 자신이 쓴 책 『내부의 적(The Enemy Within)』 한 권을 가지고 왔다. 내 이름의 영어 스펠링을 묻더니 책에 서명을 해서 내게 줬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 “당신이 한 말을 다 이해했고 형(케네디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겠다. 지금 쿠바 사태가 위급해 형은 거기에 대처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잘

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3차 대전을 하더라도 소련을 눌러서 대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각오를 하고 있다.” 쿠바로 향하던 소련 선박이 미군의 해상봉쇄선 바로 앞에 멈춰 서서 대치하던 바로 그때였다. 우리의 면담은 예정된 15분을 훌쩍 넘겨 45분간 이어졌다. 나보다 한 살 위인 로버트 케네디는 명석한 인물로 케네디 행정부의 실력자였다. 형 케네디 대통령도 중요한 일은 모두 상의할 정도였다. 로버트는 64년에 한국에 왔을 때도 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나와 첫 만남에서 ‘아, 그냥 적당히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이후 로버트 케네디와 나는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

♡ 후원회 계좌 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262-910016-32504 (재)운정재단

NH농협은행 301-0185-9589-91 (재)운정재단

### 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 1917~1963)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 뉴프런티어(New Frontier)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미국 국민의 헌신적인 협력을 호소하여 공화당 후보 리처드 닉슨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쿠바미사일위기에 즈음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련의 총리 N.S. 흐루시초프와 대결한 결과, 미국은 쿠바를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대신에 소련은 미사일·폭격기 등을 쿠바에서 철수하고, 미국측의 사찰을 인정함으로써 소련과의 극적인 타협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소련과 부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을 체결하였고, 미·소 간의 해빙무드가 형성되었다.

### 로버트 케네디 (Robert Kennedy, 1925~1968)



존 F 케네디(JFK) 대통령의 동생으로 미국 진보적 지식인의 우상이었다. 하버드대 출신 변호사로 상원위원회 법률고문을 지냈다. 1961년 1월 케네디 행정부

출범과 함께 36세 나이로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JFK 암살 뒤인 64년 11월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지만 68년 형처럼 충격을 받아 암살됐다. 가톨릭 신자로서 11명의 자녀를 뒀다. 워싱턴 근교 알링턴 국립묘지의 JFK 옆에 묻혔다. 애칭은 바비(Bobby), 이니셜은 RFK.